

97 대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1천4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3천만 서민 대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패해봤고, 참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1천4백만 노동자를 포함한 3천만 서민 대중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양재덕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진영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권영길 후보를 세웠고 3십만표라는 저조한 득표를 얻었다. 득표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3십만표라는 결과는 국민들이 노동운동 진영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 점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1992년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의 23만 표와 1987년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 것인가? 회의적이고 패배적인 좌절감에 빠지는 동지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평가와 반성으로 과학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십만 표란 낮은 득표에 좌절하는 것은 1백만 표를 얻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우쭐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1천4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3천만 서민 대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패해봤고, 참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1천4백만 노동자를 포함한 3천만 서민 대중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첫째, 객관적 조건에서 이번 선거의



8월 14일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72%가 국민후보인 을 지지했다.

90%는 TV등 미디어에서 결정났고, 나머지 10%가 조직력에서 결정났다. 90%를 결정한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에서 우리 후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조직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을 통한 선거 유세와 조합원과 우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우리 선거운동의 전부였다. 거리 유세가 유력한 수단이긴 하지만, 유세로만 우리 후보를 지지하게 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쳤다. 우리가 만나서 설득한 유권자는 실제 삼사십만을 크게 넘지 못했다. 언론은 제도 정치권만 주목했고, 우리 후보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둘째, 주체적 조건에서 우리는 너무도

준비 없이 전쟁에 출전했다. 급조한 선거 운동으로는 백전백패라는 교훈을 우리는 철저히 새겨야 한다. 경립 조직 정책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계속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진영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통일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했다. 그래서 정작 선거 운동의 시간이 부족했고 힘도 모아지지 않았다. 준비 없이 급조된 조직은 우리 힘을 제대로 모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관심을 받지 못한다.

셋째, 이런 조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우리는 이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1.2%라는 저조한 전국득표율 가운데 울산 거제 창원 아

산 인천 등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이 있다고 노조의 정치 실행단과 여러지역의 국민승리 21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것을 조직적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세력화의 소중한 씨앗들을 잇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결합했던 2백여명의 자문교수단도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계속 장단기 정책 개발을 통해 앞날을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의 것들이다.

첫째, 이번 대선에서 제기된 커다란 문제점은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과 전국연합이란 전선체로 한 후보를 만드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 대중 조직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따라서 정치세력화는 정치 부대가 먼저 만들어져야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힘있고 다수가 될 수 있는 정치 부대, 정치 조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 1만명의 정치 부대와 정치실행단이 있었다면 상황은 사뭇 달랐을 것이다. 이 1만명은 단련된 정치위원을

말한다. 단련된 1만명은 그들의 친구 동료 가족을 선거 운동으로 끌어들이 수 있으며, 이들을 1주일내 하루내지 이틀 선거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인적인 부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때 정치 부대 1만 명은 아삼십만명의 운동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하는 우리 운동의 역량은 1만

명 정도는 충분히 조직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노조의 정치실행단, 청년, 노동단체, 전농의 일꾼들은 1만명 정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정치적 구심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조직이 단순

히 선거만을 하는 조직이어서는 희망이 없다. 이 조직은 전국 차원의 사회개혁 투쟁과 지역 차원의 주민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노동자 서민과 결합하는 운동체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조직이 기존 제도권과 다른 점은 바로 이점이다. 제도권의 정당들은 기업과 손을 잡고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쟁긴다. 하지만 우리의 조직적 전략의 핵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계급과 투쟁의 관점에서 제기하며, 나아가 노동자와 일반국민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운동에 필요한 자금

이번 대선의 패배를

경험하 받아들여야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도 노동자와 일반국민들로부터 나와야만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환경단체, 종교, 예술, 여성, 법조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우리들을 외면하였다. 이 점은 앞으로든 문제이다. 우리는 사회개혁투쟁, 지역주민문제, 통일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현안에 헌신적이고 대중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중과 사회 각 부문의 신뢰를 얻어내어야 한다. 대중에 토대를 둔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셋째, 우리 힘만으로 기존 제도권과 대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우리는 선거의 90%를 차지해 버린 언론에 대해 속수 무책이었다. 권영길 후보가 25년간 기자였고 모든 언론사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언론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보잘 것 없었다. 선거법과 기성 정치권의 TV 사전 선거운동, 신문들의 편파 보도, 정치 자금의 독식 같은 제도적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이런 장벽을 깨부수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 각 분야의 운동단체와 시민단체와 연대한 압력단체를 통해 진보진영이 자유롭고 공평한 일장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 이 압력단체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여연, 민에총,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총집결한 강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과 함께 잘못된 선거관행과 제도

를 고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넷째, 우리의 정치부대인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면 장단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선거에 직면해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이란 소아병을 버리고 국내외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국내 정치권과 자본의 횡포는 물론 IMF와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독주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정치조직이 계급 민족 환경 교통 교육 문제를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집단임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D가 호남 주민 90% 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것 처럼 우리 후보도 1천4백만 노동자 90% 이상의 지지를 받을 때만이 정치 세력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국의 계급과 민족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여되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